

유아의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황 소 연¹⁾

방 회 정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만 3~6세 유아 83명을 대상으로 애착, 기질,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내러티브 기법을 이용한 애착이야기 완성과제(ASCT)를 실시하여 애착유형을 매우안정(45.8%), 비교적안정(24.1%), 불안-회피(26.5%), 불안-비조직(3.6%)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에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하위변인간에 종합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론 및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애착, 내러티브, 기질, 정서조절 능력, 사회적 능력

* 본 논문은 201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hjbang@ewha.ac.kr)

I. 서 론

부모는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이며 특히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와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영유아기에 맺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유아의 이후 정서사회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영유아기에 부모와 형성하는 애착안정성은 이후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Sroufe, 2005). 즉, 유아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이러한 애착의 질은 이후 관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IWM)’ 개념으로 가장 처음 애착을 설명한 Bowlby는 내적작동모델이 애착대상의 행동을 해석하고 미래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내적작동모델은 유아와 양육자와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패턴을 반영하고(Toth, Cicchetti, Macfie, Rogosch, & Maughan, 2000), 자기, 타인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정신과정이므로(유영미, 2004) 상당히 의미있는 차원임에 분명하다. 지금까지 애착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의 개념을 토대로 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대부분 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는데 근래에 애착이 평생을 통해 계속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전생애적 관점이 대두됨에 따라, 애착연구가 영아기 이후까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애착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이야기나 놀이와 같은 유아의 내러티브에 기초한 반투

사적 기법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이에 유아가 관계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형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내적작동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들이 개발되었다. 그중에서도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가 개발한 ASCT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는 유아에게 친숙한 인형가족을 사용하여 유아에게 애착 관련 주제의 이야기 도입부를 제시한 후 유아가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제로,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권연희, 박경자, 2003; Bretherton, et al., 1990; Page,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인지구조에 발달적으로 적합하며 내적작동모델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로 밝혀진 ASCT를 사용하여 유아의 애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애착과 유아의 이후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는 여러 연구들에서 ‘애착’ 변인은 유아의 정서사회 영역에서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의 능동적 발달을 시작하는 유아기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본질적 요소이자,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애착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기질’ 변인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차 변인인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함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애착과 기질 모두 유아의 이후 발달에 대한 기초가 되며 생애 초기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애착’과 ‘기질’ 변인 모두 이후 발달과 크게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간 두 변인을 함께 살펴본 국

내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지구조에 발달적으로 적합한 내러티브 기법을 적용해 표상에 근거한 내적작동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로 애착과 기질이라는 두 변인이 이후 정서사회발달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 능력은 사회생활의 유능한 행동을 가능케 하는 기제가 되는 핵심적 요소인 동시에 사회적 능력은 정서적 적응과 관련된 특성이자, 개인 정서조절 능력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Maccoby, Snow, & Jacklin, 1998) 두 변인의 연관성이 밀접해 이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처리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Thompson, 1987), 아동과 양육자와의 관계 내에서의 이원적 정서 조절은 애착의 핵심적 측면으로 여겨져 왔다(권연희, 박경자, 2003; 송하나, 2008). 아동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일상적 경험에 기초하여 상호적 정서 조절 전략을 내면화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을 발달시킨다. 양육자를 통해 아동의 정서가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조율되는 경험이 반복되는 경우, 아동은 보다 안정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Sroufe, 1997).

반면, 거부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 경험으로 인해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내적인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해 정서적 자극을 회피하거나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전략, 혹은 불안정 및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정

서의 과잉활성화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Cassidy, 1991).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애착 안정성과 정서의 표현 및 조절 능력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2005; Sagi et al., 1995; Song, 2003). 하지만 나양균(2006)이 실시한 국내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해 안정애착과 불안-회피애착 유형이 유사한 정서 발달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 애착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간에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핀 국내 연구가 많지 않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간에 공통된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기 동안 대인관계가 가정 외로 확장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의 하나로 애착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Ladd, 2005), 많은 연구들은 유아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Laible & Thompson, 2000; Verschueren & Marcoen, 1999; Weinfield, Ogawa, & Sroufe, 1997). 이는 애착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과 정서 조절 전략 등이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인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며, 더불어 타인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정서나 신뢰를 보이고,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반응 능력을 발달시킨 것과 관련될 것이다 (Sroufe, 1983).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협동이나 감정이입,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부적응의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들은 애착과 사회적 능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이 다양하고, 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정적임에도 행동 문제로 인해 사회적 적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기 종단 연구 결과(Erickson, Sroufe, & Egeland, 1985)를 고려해 볼 때, 애착과 관련되는 사회적 능력의 구체적 영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언어적 발달이 표상적 자극에 대한 유아의 반응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언어 발달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Solomon & George, 1999)고 하였으며, 유아의 어휘능력에 따라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의 수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손성민, 2007; Verschueren & Marcoen, 1999)는 것도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WIPPSI를 통해 유아의 어휘능력을 측정하여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휘능력간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적합한 내러티브기법을 통해 애착을 살펴보고, 애착과 기질이라는 두 변인이 유아의 정서사회발달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애착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살펴본 유아의 애착은 어떠한가?
 - 1) 유아의 애착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 2) 유아의 어휘능력과 애착안정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애착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분류된 애착유형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3. 애착, 기질, 정서 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4.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1개 유치원과 3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6세 유아 100명과 어머니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게는 사전에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언어적 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유아 17명을 제외한 8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유아의 애착표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의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를 사용하였다. ASCT는 애착관계에 대한 유아의 정신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애착 측정 도구로, 표준화된 실시절차 및 분석절차를 가지고 있다. 유아에게 친숙한 인형 및 소품을 이용하여 애착 관련 문제나 갈등(애착 대상의 권위, 유아가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애착 대상과의 분리나 재결합 상황)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한 후, 유아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내용,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평정함으로써 유아의 애착에 대한 내적 표상을 측정하는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애착표상의 유형 분류는 각 이야기에 대해 Golby, Bretherton, Winn과 Page(1995)의 코딩지침에 제시된 바대로 내러티브의 내용과 구조(내용코드, 해결코드, 과정코드, 이야기의 일관성)에 근거하여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불안-회피, 불안-비조직의 4유형으로 평정하였다. ‘안정형’의 경우, 이야기의 내용이 응집성이 있고,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나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 ‘불안-회피형’은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회피, 부정, 무시하는 것이 두드러지며, 방어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불안-비조직형’은 이야기가 맥락에서 벗어나 혼란스럽고 공격적인 요소가 포함된 기이하고 비조직화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5개의 이야기 각각에 대해 애착 유형을 분류 한 후, 이야기 전체에 대해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유아가 5가지 이야기 모두에 대하여 이야기의 주제에 응집성 있게 응답하고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면 ‘매우 안정형’에, 한 두 개의 이야기에서는 응답을 회피하거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더라도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 적절히 해결하면 ‘비교적 안정형’으로 분류된다.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 강한 회피 반응을 보이면 ‘불안-회피형’으로,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 비조직화되고 기괴하게 왜곡된 반응을 보이면 ‘불안-비조직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Bretherton 등(1990)과 Maslin, Bretherton과 Morgan(1986)은 애착 유형을 ‘안정성’의 차원에서 4점 척도 점수로 전환하여, ‘매우 안정형’에는 4점을, ‘비교적 안정형’에는 3점을, ‘불안-회피형’에는 2점을, ‘불안-비조직형’에는 1점을 부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 분류와 안정성 점수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유아의 애착표상에 대한 유형 분류는 본 연구자 및 발달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1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각 이야기에 대한 코딩과 평정을 한 후, 전체 이야기에 대한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전체 표본의 30%를 무작위로 선정, 4개 애착범주로 분류하여 코헨의 kappa계수를 구한 결과, 전체 애착 평정에 대해 93%의 일치도를 보였다. 일치를 보이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전사본과 비디오촬영 내용을 다시 비교, 검토하는 토의과정을 거쳐 동의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아의 기질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번안한 김지윤(2007)의 척

도를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도구는 행동 억제 및 긴장 수준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수줍음’ 요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접촉을 선호하는 정도인 ‘사회성’ 요인, 전반적인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활동성’ 요인, 부정적 정서 수준으로 ‘부정적 정서성’의 4가지 차원에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한다. 하위요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당하는 기질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4점 리커트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수줍음이 .81, 사회성이 .74, 활동성이 .74, 정서성이 .73, 전체가 .75로 나왔다.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Shields와 Cicchetti(1997)의 ERC(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를 김지윤(2007)이 변안, 김성애(2008)가 수정, 보완한 것을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의 총 24문항,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통제’ 요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불안정/부정적 정서’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애의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불안정/부정적 정서를 모두 역채점하여 안정적 정서를 뜻하도록 하여 ‘전체 정서 조절’ 능력 점수를 산출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6번 문항을 삭제하여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

과 Cronbach's α 값은 정서 통제가 .72, 안정적 정서가 .70, 전체 정서 조절 능력 .73이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

Pease, Clark와 Crease(1979)이 개발한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Preschool form 중 교사용 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수정한 송나리(1992)와 성연승(1999)의 척도를 기초로 재구성한 최정아(2008)의 척도를 유아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23문항,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능성’ 요인은 언어적 지시 이해나 상황 판단력을, ‘지도력’은 낯선 활동에 대한 도전이나 낯선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도를, ‘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의 허용성이나 협력성을, ‘안정성’은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의 적절한 대처 방식 수준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 중 유능성, 민감성, 안정성 요인 각각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 1개 문항씩을 제외한 20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유능성이 .71, 지도력이 .86, 민감성이 .79, 안정성이 .80, 전체가 .92로 나왔다.

유아의 어휘 능력

Solomon과 George(1999)는 아동의 언어적 발달 수준이 표상적 자극에 대한 언어적 반응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의 수행과 언어적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중

‘어휘’ 소검사를 본 연구대상 유아에게 실시하였다.

3. 절차

예비조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유아 3명을 대상으로 ASCT의 이야기도구 및 실시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유아와 연구자간의 라포 형성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Bretherton 등(1990)이 제안했던 검사 실시 전 자유놀이 시간을 없애고 대신 ASCT의 위밍업이야기에서 유아와 검사자간에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2월 17일 ~ 2010년 04월 14일 까지 실시되었다. 유아교육 기관의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약 30분간 ASCT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휴식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한국판 유아용 웨슬러지능검사(K-WIPPSI)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첫째, 애착이야기 완성과제(ASCT)에 의한 유아의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휘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애착, 기질,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애착과 기질을 독립변인,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휘능력을 통제변인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연구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어휘능력은 18점 만점에 평균 11.19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여 연구 대상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ASCT)로 측정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은 4점 만점에 평균 3.12점을 받아, 유아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애착 유형 분류

내러티브에 나타난 내적 표상에 근거하여 애착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83개 사례 중 ‘매우 안정형’이 45.8%($n=38$)였고, ‘비교적 안정형’이 24.1%($n=20$)로 안정 애착유형이 69.9%였고, ‘불안-회피형’은 26.5%($n=22$), ‘불안-비조직형’은 3.6%($n=3$)로 불안정 애착유형이 30.1%로 나타났다.

표 1. 유아의 성에 따른 어휘능력, 애착안정성, 기질,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의 경향

변 인	점수 범위	전체(N=83)		남(n=46)		여(n=37)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어휘능력	1~18점	11.19	2.67	11.52	2.60	10.78	2.74	1.549
애착안정성	1~4점	3.12	.93	3.07	.95	3.19	.91	.362
기질								
수줍음	5~20점	12.24	2.74	12.54	2.84	11.86	2.61	1.259
사회성	3~12점	9.57	1.40	9.50	1.55	9.65	1.21	.229
활동성	5~20점	16.24	2.22	16.24	2.28	16.24	2.18	.000
부정적정서성	5~24점	13.51	3.00	13.22	3.13	13.86	2.83	.954
정서조절 능력								
안정적정서	14~56점	48.61	3.31	48.52	3.36	48.73	3.30	.080
정서통제	9~36점	25.25	3.59	25.24	3.49	25.27	3.75	.002
충정서능력	23~92점	73.87	5.33	73.76	5.25	74.00	5.50	.041
사회적 능력								
유능성	4~20점	14.22	2.50	13.59	2.54	15.00	2.24	7.039*
지도력	9~45점	29.05	5.91	27.87	6.35	30.51	5.01	4.271*
민감성	4~20점	11.53	2.88	11.04	3.02	12.14	2.62	3.016
안정성	3~15점	10.60	2.51	10.65	2.54	10.54	2.51	.040
총사회적능력	20~100점	65.40	11.63	63.15	12.59	68.19	9.76	3.988*

* $p < .05$

표 2. 유아의 애착유형 분류

애착유형	남아	여아	전체
	<i>N</i>	<i>N</i>	<i>N</i> (%)
매우안정애착	20	18	38(45.8)
비교적안정애착	11	9	20(24.1)
불안-회피애착	13	9	22(26.5)
불안-비조작애착	2	1	3(3.6)
전체	46	37	83(100.0)

3.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휘능력간의 관계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유아가 애착 관계를 표상하는데 어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출한 어휘 능력과 애착안정성 점수 간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는 .296($p < .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관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 조절 및 사회적 능력의 차이 분석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통제와 충정서 조절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사후검증 결과, '불안-회피형' 유아에 비해 '매우 안정형'에 속하는 유아의 정서 조절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매우 안정형'의 사회적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애착, 기질,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분석

애착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앞서 살펴본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어휘능력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어, 애착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유아의 어휘능력을 통제하고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SCT)로 측정된 유아의 애착안정성 점수와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애착안정성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표 4 참조). 즉,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안정적으로 표상하는 유아는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질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아의 기질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표 5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질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서 조절 능력은 낮으며($r = -.56, p < .01$), 특히 수줍음이 많을수록 효과적인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 = -.37, p < .01$).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질의 수줍음 차원이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을수록 지도력이나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질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선호할수록, 교사에 의해 전반적인 사회적 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애착과 기질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어휘능력을 통제하고, 애착과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포함되는 각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능력의 각 준거변인에 있어서 그 전체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영역은 안정적정서, 정서통제, 충정서능력이었다. 그 중에서도 충

표 3.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의 차이

구 분	애착유형	N	M	SD	F	Scheffe	
정 서 조 절 능 력	안정적 정서	1. 매우안정	38	49.45	2.69	1.92	
		2. 비교적안정	20	47.80	2.55		
		3. 불안-회피	22	48.27	4.39		
		4. 불안-비조직	3	46.00	4.58		
	정서통제	1. 매우안정	38	26.68	3.35	5.65**	a>c
		2. 비교적안정	20	24.80	2.91		
		3. 불안-회피	22	23.09	3.64		
		4. 불안-비조직	3	26.00	2.65		
	총 정서능력	1. 매우안정	38	76.13	5.28	5.05**	a>c
		2. 비교적안정	20	72.60	3.82		
		3. 불안-회피	22	71.36	5.40		
		4. 불안-비조직	3	72.00	4.36		
사 회 적 능 력	유능성	1. 매우안정	38	14.76	2.15	3.66*	
		2. 비교적안정	20	14.70	2.75		
		3. 불안-회피	22	13.23	2.51		
		4. 불안-비조직	3	11.33	1.15		
	지도력	1. 매우안정	38	30.87	5.13	7.00***	a>c b>c
		2. 비교적안정	20	30.60	5.20		
		3. 불안-회피	22	25.41	5.73		
		4. 불안-비조직	3	22.33	6.51		
	민감성	1. 매우안정	38	12.34	2.25	5.57**	a>c b>c
		2. 비교적안정	20	12.10	1.94		
		3. 불안-회피	22	9.55	3.75		
		4. 불안-비조직	3	12.00	2.00		
	안정성	1. 매우안정	38	11.26	2.38	4.36**	a>c
		2. 비교적안정	20	10.80	1.67		
		3. 불안-회피	22	9.09	2.88		
		4. 불안-비조직	3	12.00	2.00		
	총 사회적 능력	1. 매우안정	38	69.24	9.86	7.08***	a>c b>c
		2. 비교적안정	20	68.20	8.91		
		3. 불안-회피	22	57.27	12.88		
		4. 불안-비조직	3	57.67	8.62		

* $p < .05$, ** $p < .01$, *** $p < .001$ a : 매우안정, b : 비교적안정, c : 불안-회피, d : 불안-비조직

표 4.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의 부분상관관계

	정서조절 능력			사회적 능력			
	안정적정서	정서통제	전체	유능성	지도력	민감성	안정성
애착안정성	.297**	.346**	.414***	.316**	.438***	.345**	.189

** $p < .01$, *** $p < .001$

표 5.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

정서사회능력	기질하위요인	수줍음	사회성	활동성	부정적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안정적정서	.13	-.17	-.16	-.42**
	정서통제	-.37**	.21	.20	-.44**
	총정서능력	-.17	.04	.04	-.56**
사회적 능력	유능성	-.19	.11	-.07	-.22*
	지도력	-.40**	.33**	.15	-.09
	민감성	-.39**	.43**	.27*	-.14
	안정성	-.24*	.21	.20	-.18
	총사회적능력	-.39**	.34**	.17	-.16

* $p < .05$, ** $p < .01$

표 6.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영역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t	R^2	F
정 서 조 절 능 력	안정적 정서	애착	.303	2.769**	.347	6.477***
		수줍음	.205	1.674		
		사회성	-.099	-.816		
		활동성	-.093	-.772		
		부정적 정서성	-.442	-4.377***		
	정서 통제	애착	.176	1.562	.310	5.477***
		수줍음	-.144	-1.141		
		사회성	.146	1.174		
		활동성	.001	.007		
		부정적 정서성	-.364	-3.504**		
	총정서 능력	애착	.304	2.928**	.411	8.496***
		수줍음	.030	.257		
		사회성	.037	.323		
		활동성	-.057	-.495		
		부정적 정서성	-.516	-5.379***		

표 7. 애착과 기질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영역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t	R^2	F
사 회 적 능 력	유능성	애착	.227	1.861	.118	2.769*
		수줍음	-.188	-1.372		
		사회성	.090	.661		
		활동성	-.293	-2.170*		
		부정적 정서성	-.176	-1.557		
	지도력	애착	.330	2.905**	.298	5.163***
		수줍음	-.319	-2.507*		
		사회성	.157	1.251		
		활동성	-.155	-1.235		
		부정적 정서성	.032	.306		
	민감성	애착	.197	1.706	.272	4.548**
		수줍음	-.201	-1.548		
		사회성	.279	2.181*		
		활동성	-.023	-.184		
		부정적 정서성	-.091	-.855		
	안정성	애착	.071	.569	.140	1.984
		수줍음	-.071	-.507		
		사회성	.142	1.023		
		활동성	.069	.497		
		부정적 정서성	-.208	-1.793		
	총사회적 능력	애착	.284	2.492*	.290	4.977***
		수줍음	-.271	-2.119*		
		사회성	.201	1.590		
		활동성	-.135	-1.071		
		부정적 정서성	-.089	-.843		

* $p < .05$, ** $p < .01$, *** $p < .001$

정서능력에서 41.1%의 설명력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애착과 기질이 사회적 능력의 각 준거변인에 있어서 그 전체적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영역은

유능성, 지도력, 민감성, 총 사회적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도력에서 29.8%의 설명력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내러티브기법을 통해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여 애착, 기질,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련성과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ASCT를 통해 애착유형을 분석한 결과, 안정형이 69.1%로, 불안형이 56%였던 Verschueren, Marcoen과 Schoefs(1996)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표집과정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는데, 우선 본 연구는 중류층의 비임상 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부모 참여 없이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Verschueren 등(1996)의 연구와는 달리, 유아와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하였다. 즉, 부모가 포함된 연구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부모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한 유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별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애착유형 분포에 차이를 야기했을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어휘능력의 차이에 따라 애착안정성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손성민, 2007; Verschueren & Marcoen, 1999)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어휘 능력과 애착안정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어휘 능력과 애착안정성간에 상관관계는 .296($p < .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상관정도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애착 유형별로 정

서통제와 총정서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결과 매우안정형과 불안-회피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안정성과 정서조절 능력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했던 선행 연구들(박혜주 외, 2005; Maras, Arend & Sroufe, 1978; Sagi et al., 1995; Song, 2003)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통해 유아의 정서가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이 반복되는 경우, 유아는 보다 효율적인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Sroufe, 1997). 다음으로, 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사가 평가한 사회적 능력의 모든 하위요인 및 총사회적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표상하는 등 애착관련 내러티브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반응을 나타낸 유아가 사회적으로 보다 유능함을 밝힌 선행연구들(Page, 1998; Verschueren & Marcoen, 1999) 및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에 비해 교사 및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으로 보다 유능함을 밝힌 서명원(2009)과 이진숙(2001)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불안-회피 애착유형으로 분류된 유아의 경우 정서통제, 총정서 능력, 민감성, 안정성, 총사회적 능력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매우안정형 및 비교적 안정형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회피형 유아의 양육자와의 관계 특성에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정서적으

로 거리를 두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등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유아는 자신의 정서가 민감하게 조율되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낮은 정서 조절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못한 표상을 형성하게 되다보니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교사에 의해 사회적으로 덜 유능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서 조절이나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 안정형 및 불안-회피형과 불안-비조직형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이러한 유형 간에 차이가 실제로 없음을 의미한다기 보다 불안-비조직형의 사례수가 적어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애착과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 중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에 있어서는 기질에 대한 정의 및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바,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질적 특성과 정서사회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질의 하위요인에서 수줍음과 부정적 정서성이 정서조절 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능력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나양균(2006) 및 박지숙과 박성연(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기질적으로 행동 억제 및 긴장 수준이 높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하며, 또한, 정서적

으로 쉽게 각성되고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질의 하위요인과 사회적 능력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 억제나 긴장 수준이 낮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접촉을 선호할수록 교사에 의해 사회적으로 능력이 높은 유아로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유아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애착과 기질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어휘능력을 통제하고, 애착과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포함되는 각 하위변인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실제적인 설명량도 높게 나타나, 유아의 애착과 기질이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신뢰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서조절능력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육자와의 애착 안정성에 비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능력의 지도력이나 총사회적 능력에 있어서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비해 양육자와의 애착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조절 능력 자체는 생물학적 성향에 기인하는 기질과 상당 부분 관련이 되지만, 이러한 정서 조절 능력이 사회적 능력과 연결되는데는 양육자와의 애착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유아의 타고난 기질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 안정성이 유아의 발달이나 적응에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는다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연구를 떠나 부모 교육이나 치료 등의 영역에서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ASCT)를 적용하여, 표상에 근거해 내적작동모델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유아 애착 연구는 수정된 분리-재결합 절차를 사용하거나, 혹은 애착 Q-set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절차들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유아기의 독특한 인지/언어적 발달 특성을 간과하는 면이 있거나, 혹은 양육자 보고에만 의존한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CT를 적용함으로써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평가 절차를 사용했으며 또한, 직접적으로 유아를 참여시켜 애착을 평가했다는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교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부모 보고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애착, 기질,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정서사회발달에 있어 애착과 기질의 높은 설명력을 밝힘으로써 유아의 추후 긍정적 발달을 돕기 위한 유아-양육자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표본상의 문제로 분석에 제한을 가져왔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1개 유치원 및 경기도권 3개 어린이집을

임의로 선택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이 중류층의 비임상집단에 제한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전체 표본의 수가 충분치 않았으며 특히 전체 집단 중 불안-비조직 애착유형 집단의 표본 수가 작았던 것이 세부 집단별 차이분석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사회적 계층이나 거주지에 대한 통제와 함께 전체 유아 및 세부 집단별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어머니간 애착이 갖는 설명력에 초점을 둬으로써 아버지나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 실제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아-어머니간 애착에 대해 애착 안정성 점수가 매우 높은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보고한 사회적 능력에서는 저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애착 안정성 점수가 매우 낮은 유아이지만 제반 발달 영역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유아-어머니간 애착이나 기질 이외에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주요 변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후연구가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질과 애착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경로 분석 등을 적용하여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3-38.
- 김성애 (2008).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유아와 일반유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윤 (2007).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양균 (2006). 영아의 사회. 정서능력과 기질 및 애착간의 관계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숙, 박성연 (2008).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5(4), 1-16.
-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방희정 (2005). 낮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23-38.
- 서명원 (2009). 부와 모의 애착표상 일치와 유아의 인지·사회·정서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연승 (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양육환경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성민 (2007). 농촌 유아의 애착표상과 자아지각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나리 (1992).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하나 (2008). 유아의 성과 애착 안정성이 정서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99-111.
- 유영미 (2004). 어머니의 양육체계와 유아의 애착체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아 (2008). 결혼 이민자 가정의 가정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273-308). Chicago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ssidy, J. (1991).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ographs*, 59(2-3), 228-249.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 Modes of linkage* (pp.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in a high 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147-166.
- Golby, B., Bretherton, I., Winn, L., & Page, T. (1995). *Coding manual for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Laible, D. J., & Thompson, R. A. (2000). Mother-child discourse, attachment security, shared positive affect, and early conscienc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5), 1424-1440.
- Maccoby, E. E., Snow, M. E., & Jacklin, C. N. (1998). Children's disposition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t 12 and 18 months: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Advances in Infancy Research*, 12, 15-35.
- Maslin, C., Bretherton, I., & Morgan, G. A. (1986). *Influence of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caffolding on mastery motiv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Los Angeles.
- Mar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3), 547-556.
- Page, T. F. (1998). *Linkages between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families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care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ease, D., Clark, S. G., & Cre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Schoolage &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Inc.
- Sagi, A., van IJzendoorn, M. H., Aviezer, O., Donnell, F., Koren-Karie, N., Joels, T., & Harel, Y. (1995). Attachments in a multiple-caregiver and multiple-infant environment: The case of the Israeli Kibbutzim.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71-94.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 Psychology*, 33(6), 906-916.
- Solomon, J., & George, C. (1999). *Attachment disorganization*. New York: Guilford.
- Song, H.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Mediated pathways by children's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roufe, L. A. (1983). Infant caregiver attachments and patterns of adaptations in preschool.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on*

- child psychology* (vol. 16, pp.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1997). Psychopathology as an outcome of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251-268.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7(4), 349-368.
- Thompson, R. A. (1987). Empathy and emotional understanding: The early developmen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119-1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th, S. L., Cicchetti, D., Macfie, J., Rogosch, F. A., & Maughan, A. (2000).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ral-affiliative and conflictual themes and behavioral problems in maltreated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3), 307-318.
- Verschueren, K., & Marcoen, A. (1999). Representation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eners: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83-201.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5), 2493- 2511.
- Weinfield, N. S., Ogawa, J. R., & Sroufe, L. A. (1997). Early attachment as a pathway to adolescent peer compet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3), 241-266.

1 차원고접수 : 2012. 4. 7.
수정원고접수 : 2012. 8. 16.
최종게재결정 : 2012. 9. 1.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Temperament on the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Hwang, So-Yeon

Bang, Hee-Jeong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investigate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of children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representations, temperament,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Children's attachments, as represented in their narrative responses, were classified as very secure(45.8%), weak secure(24.1%), insecure-avoidant(26.5%), and insecure-disorganized (3.6%). In addition,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did not appear to differ according to the gender. ANOVA was performed in order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The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the children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of attachment representa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hment representation, temperament,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the children.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ssess the effects of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temperament on their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ttachment, narrative, temperament, emotional, social competence